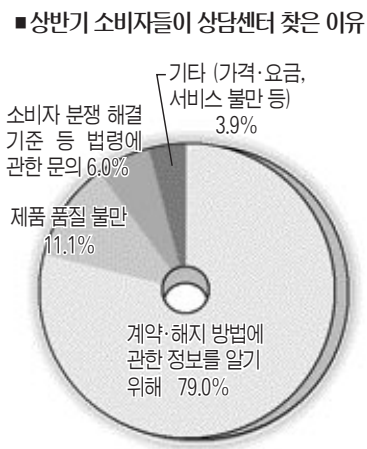


경제

품질·가격 꼼꼼히 따져 ... '더 이상 봉 아니네' 소비자들 짹짹해졌다

주부 황모(여·41·광주시 북구)씨는 최근 330만원짜리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E가구업체에 지불했던 계약금 100만원중 83만5천원을 되돌려받는데 성공했다.



올 상반기 YWCA 소비자 상담 2천여건 분석 환불규정·해약요구 등 정보 요청 80% 차지

불량이 장기화되면서 황씨처럼 소비분쟁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는 간간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1~6월) 광주 YWCA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2천208건으로 이중 환불규정, 계약이행 및 해약요구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가 1천744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79.0%를 차지했다.

가한 것이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상담센터로 찾는 이유는 제품 품질(224건·11.1%), 서비스 불만(30건·1.3%), 가격·요금(27건·1.2%), 불공정 계약(9건·0.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상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대다수인 97.3%가 '상담이나 정보 제공'에 그쳤고 계약해제(0.4%), 손해배상(0.3%) 등 상담센터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사후처리는 미미했다.

를 이었다. 한편 올 상반기 광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1천304건) 중 의류 등 섬유관련 상품이 187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서비스(8.1%), 건강식품 및 기호식품(7.8%) 등의 순이었다. 광주YWCA 소비자상담센터 김미희 부장은 "불량이 깊어지면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 법령이나 계약, 환불 절차 등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호서비스도 광고를 보고 무작정 가입하기 보다는 가입 전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하는 등 현명한 소비 활동을 위한 상담 요청이 많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국 1위 '청정 전남' 문제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눈앞 ... 대책 절실

우리나라 제조업·광업 분야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 중 4분의 1은 전남 산업체들이 내뿜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정 전남'이라는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013년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천·18.1%), 울산(3천191만5천·14.2%)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전남도와 시군 등은 온실가스가 얼마나 어디에서 배출되는지 기본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 등도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인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검증을 받은 곳도 광주·전남에서는 여천NCC, LG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광전자 등에 불과하다.

Table showing CO2 emissions by region and industry. Columns include Region, Industry, t CO2 (CO2 환산톤), and Ratio (%). Total emissions are 766.9 t CO2.

5천231개 전부와 5인 이하 업체 가운데 선정된 표본 2만1천865개 등 모두 14만7천9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KC마크 상품 전시회'

KC마크만이 미모의 여성에게 공개 청혼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1년까지 정부의 각종 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한다.

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KC마크 부각 대한민국 일류상품 전시회'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표준을 대표해 온 13개 인증마크(김, K, 안전 등)맨들과 KC마크만이 미모의 여성에게 공개 청혼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1년까지 정부의 각종 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한다. /연합뉴스

4300억 찾아가세요 김감원,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이 해지됐거나 계약이 만료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보험회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은 총 592만 건, 4천27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7억 원 감소했다.

'지역대학 인재육성 기금 마일리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2천만원 돌파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펼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대학 인재육성 기금 마일리지' 캠페인이 지역대학 동문 및 고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지 2월부터 6월까지

지 조성된 인재육성기금이 2천1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캠페인에 동참한 고객수도 1만2천여명으로 월평균 2천400명, 하루평균 80여명에 달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마일리지 적립 실적에 내년 1월까지 마일리지

기금 전달식을 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등 광주·전남지역 31개 대학 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이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상품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모으고 마일리지로 적립해 0.5%에 해당하는 기금을 동문회에 기증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대학별로는 전남대 2천200여건, 조선대 1천700여건, 광주교대 1천300여건, 목포대 740여건, 동산대 680여건 등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은행권 "가계대출 늘리겠다" 3분기 대출전망태도지수 전분기보다 4P 상승

은행들은 올해 3분기 가계의 신용 위험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가계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6일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신총괄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가계주택자금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3으로 전분기보다 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02년 1분기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대출전망지수 전망치가 플러스이면 은행들이 대출에 적극적이고, 마이너스면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계일반자금에 대한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9로 전분기의 -3보다 12포인트 급등하면서 2007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광주신보, 재래시장 상인 대출 200억 추가 지원

광주신보보증재단(이사장 김재욱)이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희망대출' 추가 지원 규모를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광주신보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만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100억원 가량을 보증지원했다"며 "소상공인정책자금 가운데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달부터 보증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상인회 추천을 받은 상인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4.5%에 상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이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

Infographic showing financial indicators: 코스피지수 1,428.94 (+8.90), 코스닥지수 505.42 (+3.60), 금리 (국고채 3년) 4.09% (+0.05), 원·달러 환율 1,268.50원 (+2.5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에셋코리아' and listing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완지구' (Suwanji-gu) located near Lotte Mart, featuring '수완 롯데마트 옆' and '팰리스타워빌딩'.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